

10-5-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히브리서 7:1-3

말씀 제목: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라는 말은 주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영원한 평화를 주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살고 있는 단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롬 3:10-18)

사람 속에 있는 불의한 죄들은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도 제거하여 의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불의한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요 1:29-3)

하나님께서서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양으로 보내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제물을 죽여 피흘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육체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그들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여 의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들 속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여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은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히 10:1-4)

사도 바울은 마침내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나타나심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러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히 10:5-10)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을 통해 모든 죄들이 제거되고 거룩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들이 제거되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2-14)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평화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와 안전은 고작해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잠시 육신을 잠시 동안 편하게 해 주겠다는 거짓 평화와 안전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모든 죄들이 제거될 때에 비로소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참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피를 믿어 자신이 주시는 의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요 3:3,5)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롬 14:17-18)

마지막 때인 지금 세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에 의와 평화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올리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 | 3) 아멘! 할렐루야!